



대교협 대학평가인정제의 운영 체제, 절차, 성과와 발전 방향

강 병 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지원실장

I. 들어가는 말

대학평가인정제는 대학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포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사회적인 신뢰와 인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인 대학평가는 1982년 전국 4년제 대학간 자율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설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설립과 동시에 대교협이 대학평가를 실시한 이래 최근 들어서는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대학 재정지원 평가, 한국공학인증 등 민간평가인증기관이 주관하는 학문분야평가, 언론기관에 의한 대학평가 등으로 대학평가가 다양화되었다.¹⁾

이처럼 다양한 평가기관들에 의한 평가로 인해 대학들은 평가중복에서 오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더구나 평가결과가 대학에 대한 사회적인 평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대학들이나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나 모두 평가 결과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금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학평가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대학평가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²⁾ 평가전담기구를 정부가 설립하여 대학평가를 직·간접적으로 관장하려는 방안에 대해서 대학들은 그 동안 정부가 표방해 온 대

- 1) 최근 들어 대학평가가 대교협에서 주관하는 대학종합평가와 학문분야평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대학 재정지원 평가, 언론기관의 대학평가, 일부 정부 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지원 평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 평가, 한국공학인증과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학문분야평가 등 다양한 평가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 2) 2003년 1월 13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학평가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대학평가전담기구'를 설립하여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는 평가운영 및 재정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한국대학평가원법'(가칭)을 제정하겠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지난 4월 9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는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① 학문분야별 민간 전문 평가인증기관 인증제 도입, ②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전담할 '상설 평가기구' 설치 추진, ③ 국내·외 전문 컨설팅 기구를 통한 대학자체 경영 진단 유도 등의 방안을 보고하였다.

“

대학평가인정제도는 대학사회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질 관리 활동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대학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사회의
 집단적인 노력으로서 의의를 지닌 제도이다.

”

학자율화정책기조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적지 않은 우려를 하고 있다.

대학평가인정제도는 대학사회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질 관리 활동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대학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사회의 집단적인 노력으로서 의의를 지닌 제도이다. 대학평가제도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책구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평가인정제도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의의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대학평가인정제도의 의의를 살펴보고, 대교협 대학평가인정제도가 실시된 배경과 운영 체제, 평가인정 절차와 성과 및 과제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 대학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대안으로 대교협 대학평가인정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II . 대학평가인정제도의 의의

대학평가인정활동은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 사회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동료 평가 제도로서 의의를 지닌 제도³⁾이다. 이미 100여 년의 대학평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대학들은 19세기 중엽에 시작된 고등교육기관의 급격한 증가와 다양화 추세에 따라 제기된 대학교육의 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으로 대학평가인정제를 시행해 왔다. 미국의 대학평가인정제의 주된 특징은 자율적인 비정부적 평가인증기구(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의 주도⁴⁾ 아래 정기적인 자기진단(self-study)과 동료집단(faculty peer

- 3) 외국의 대표적인 대학평가제도로는 미국의 '대학평가인증' (Accreditation)제도와 영국의 대학평가제도가 있다. 영국의 대학에 대한 평가는 정부가 주관하는 '대학 재정지원 평가'와 대학간 협의체가 주관하는 '대학 질 관리를 위한 평가'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1997년 '고등교육질보장기구' (Quality Assurance Agency for Higher Education : QAA)로 대학 평가 기능을 통합하여 대학재정지원과 대학평가를 연계 하고 있다. 이는 영국 대학들은 법적으로는 사립대학의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대학재정의 70%이상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영국 대학의 주요한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의 대학평가는 비정부적인 평가인증기구의 주도 아래 대학사회의 자율적인 동료평가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사립대학이 절대적인 비중(1999~2000년, 미국의 4년제 대학 2,363교 중 사립대학이 1749교로 74%를 차지, 미 교육부, Digest of Statistics(2001) 참고)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대학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대학은 사립대학의 비중이 84%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미한 수준(사립대 운영 수입의 4.5% 수준, 2001 기준)이므로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하고 있는 영국의 대학평가제도보다는 미국의 대학평가인정제도가 우리 대학들에 보다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 4) 미국의 대학평가인증은 대학전체의 운영을 평가하는 기관평가와 전문 분야별 프로그램평가로 구분되는데, 기관평가는 6개 지역의 평가인증협의회와 8개의 전국적 평가인증협의회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로그램평가는 약 70개에 달하는 학문 분야별 전문 프로그램 평가인증협의회가 주관하고 있다.

group)에 의한 서면평가와 현지방문평가(site visit)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대학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평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 대학이나 프로그램이 평가인정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과정이나 수단 등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대학평가인정제는 대학들로부터는 지나치게 많고 세분화된 평가기준과 복잡하고 긴 평가인정 절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정진위 외, 2000), 정부와 학생 및 일반으로부터는 평가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개 압력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결과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 제공에 대한 압력⁵⁾을 받고 있으나, 그 동안 미국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개선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미국 대학사회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평가인증제는 정부의 대학운영에 대한 개입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연방의회가 1992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각 주에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를 담당할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 정부가 대학평가인증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으나, 대학사회의 반대로 연방의회가 이를 다시 취소하고 대학평가인증 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선 사례는 미국의 대학들이 대학운영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 대학평가인증제의 사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정진위 외, 2000).

Ⅲ. 대교협 대학평가인정제 실시 배경

우리의 경우에도 대학인구의 양적 팽창을 추구해 온 것에 대한 반성으로 대학교육의 수월성에 입각한 대학교육의 질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었고, 이러한 요구는 대학평가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 개선에 자극을 주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1984년 의원 입법으로 제정·공포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법률 제3727호)에 대학평가제도에 관한 특별조문(동법 제18조(대학평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교육과 대학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을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법에서 대학간 자율 협의체인 대교협이 대학평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은 대학들의 대학자율화에 대한 강한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교협의 대학평가인정제는 대학의 자체평가와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전문 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와 현지방문평가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어 미국의 대학평가인정제와 마찬가지로 회원대학간 자기점검과 동료적 평가(peer evaluation)의 특성을 지닌 대학사회의 자율적 평가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는 집단적 자기 규제를 통하여 대학자율성을 확보하고, 고등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학사회의 자율적인 노력이다.

5) 이 밖에도 미국의 평가인정제도는 전통적(site-based)인 대학이나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가상 대학(Virtual Universities)이나 온라인 캠퍼스 등 새로운 형태의 교육기관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인증 압력과 국제적인 평가인증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등의 압력을 받고 있다(Judis, 2002).

“

대교협이 대학평가인정제는 대학의 자체평가와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전문 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와
 현지방문평가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어 미국의 대학평가인정제와 마찬가지로
 회원대학간 자기점검과 동료적 평가(peer evaluation)의
 특성을 지닌 대학사회의 자율적 평가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

1982년 창립과 함께 대교협은 대학 전반을 진단하는 5년 주기의 '대학기관평가' (1991년부터 '종합평가'로 명칭이 바뀌었음)를 2주기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개별 학과나 학문계열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학과평가'를 1990년도까지 실시하였다. 대학평가제도를 강화하자는 당시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교육개혁심의회'의 건의에 따라 대교협은 1992년부터 '대학학과평가'를 '학과평가인정제'로 전환하였다가, 이를 다시 1999년부터는 '학문분야평가인정제'로 전환하였으며, '대학종합평가'는 1994년부터 '대학종합평가인정제'로 전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학종합평가'는 교육, 연구, 사회 봉사, 교수, 시설·설비, 재정·경영 등 6개 영역에 걸쳐서 대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7년 동안 163개 대학에 대한 1주기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이들 대학에 대해 제2주기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997년 이후 신설된 대학에 대해서는 졸업생이 배출되는 해에 '신설대학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학과평가'를 '학과평가인정제'와 '학문분야평가인정제'로 전환한 이후 연 평균 2개 학문 분야를 대상으로 총 21개 학문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매년 3개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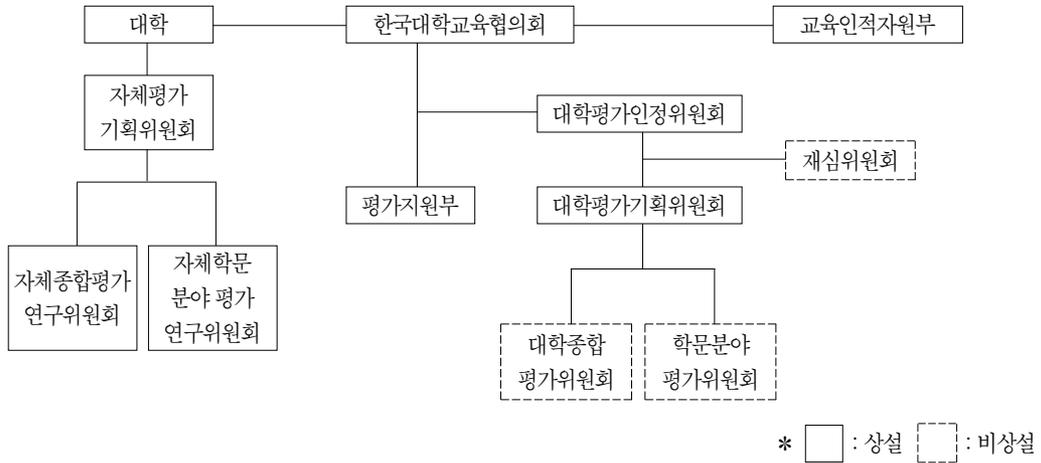
Ⅳ. 대교협 대학평가인정제 운영 체제, 평가 인정 절차와 성과 및 과제

1. 대학평가인정제 운영 체제

대학평가인정제는 다음의 [그림 1]에서와 같이 '대학평가인정위원회'와 각종 '전문위원회', 이들 위원회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대교협 평가지원부, 자체평가기획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각 대학, 대학평가인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지원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교협 대학평가인정제는 대학평가인정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교협 이사회로부터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을 존중받고 있는 '대학평가인정위원회'와 관련 분야의 전문교수들로 구성되는 각종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학평가인정위원회'는 대학평가인정제 운영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대학평가의 기본 방향과 기본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결정, 평가결과 처리와 활용 방안에 관한 심의·결정, 대학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에 대한 조



(그림 1) 대학평가인정제의 운영 조직

정 등의 기능을 하는 대학평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이다. 동 위원회 위원은 5인 이내의 산업계 대표와 사회단체 대표, 대교협 이사회가 선정한 5인 이내의 대학 총장이나 대학 보직 교수, 2인 이내의 대학 평가전문가, 당연직 위원인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대교협 사무총장 등 15인으로 구성·운영된다.

‘대학평가기획위원회’는 10명 이내의 평가전문 교수로 구성되어 평가인정 업무의 집행전략 수립, 평가결과에 대한 예비판정, 평가인정에 관한 연구·조사 등의 활동으로 ‘대학평가인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한다.

‘대학종합평가위원회’ 및 ‘학과평가위원회’는 대학종합평가와 학문분야평가시에 서면평가와 현지방문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비상설위원회로서 위원들은 전원 대학과 관련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림 1)에는 표시되지 않았으나 대학종합평가와 각 학문분야평가에 필요한 평가편람과 평가기준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평가편람개발

연구위원회’, ‘평가기준개발연구위원회’가 있다. 동 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위원들은 대학과 관련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들로 구성된다.

2. 대학평가인정 절차

대학평가인정은 크게 평가대상 대학의 선정 → 평가편람 및 기준 개발 → 대학별 자체연구(진단)의 수행 → 서면평가 → 현지방문평가 → ‘대학평가인정위원회’의 인정여부 판정 및 평가 결과 공표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 1단계 : 평가대상 대학 및 학문분야 선정

대학종합평가의 평가대상 대학은 각 대학이 신청한 평가시기를 토대로 ‘대학평가인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도별 평가대상 대학을 결정하고, 학문분야평가의 경우에는 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분야, ② 타 학문 분야에 파급효과가 큰 학문 분야, ③ 자격증, 면허와 관련되는 학문분야, ④ 다수 대학에 설치된 학문분야, ⑤ 균형 있는 학문발전에 대한 고려 등의 평가대상학문분야 선정원칙에 따라서 ‘대학평가인정위원회’가 매년 평가대

상 학문분야를 선정한다.

■ 2단계: 평가편람 및 평가기준 개발

평가편람 및 평가기준 개발은 대학과 관련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들로 구성되는 '평가편람 개발위원회'와 '평가기준개발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수 차례의 회의와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개발된 평가편람 및 평가기준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들은 평가편람 및 평가기준 개발 위원들과 평가대상 대학들의 자체평가를 담당하는 교수들간에 워크숍을 통하여 충분히 전달하는 과정을 거친다.

■ 3단계: 대학별 자체평가연구 수행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은 '자체평가기획위원회'와 '자체평가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별 자체평가를 실시 한 뒤, 대교협에 제출한다.

■ 4단계: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실시

'대학종합평가위원회'와 각 '학문분야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대학이 제출한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검토하여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대학종합평가의 경우에는 2~3일 정도의 현지방문평가(학문분야평가는 1일 정도의 현지방문평가)를 실시한 뒤, 개별대학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 5단계: 인정 여부 판정 및 판정 결과 공표

'대학종합평가위원회'와 각 '학문분야평가위원회'가 제출한 개별 대학 평가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평가인정 자료가 작성되며, 동 자료는 '대학평가기획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대학평가인정위원회'의 최종적인 평가인정 여부에 대한 심

의·의결을 거쳐 평가인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평가결과는 대학종합평가의 경우에는 평가인정 여부와 영역별 우수대학을, 학문분야평가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의 4단계로 그리고 각 평가영역에 대해서는 우수대학을 발표하고 있다.

3. 대학평가인정제의 성과 및 과제

대학평가인정제의 목적⁶⁾은 대학평가인정 절차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수월성, 효율성, 책무성, 자율성, 협동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대학재정 확충 등을 통하여 대학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대학들은 대학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교육여건의 개선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대학들은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교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대학종합평가를 받은 대학들의 경우 평가 전후 3년 동안 교수증가율이 평균 18.9%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종합평가는 이러한 대학교육 여건 지표상 나타나는 성장 및 발전 외에도 '대학 발전 10개년 계획'의 수립과 동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학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해 왔다.

대교협 대학평가인정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2001년도에 수행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평가제도 종합개선방안 연구'(박남기 외, 2001)에서도 현재 시행 중인 교육인적자원부 평가, 언론사

6) 참고로 미국 대학평가인정제의 목적은 ① 평가인증 받은 고등교육기관이나 교육프로그램이 교수, 교육과정, 학생 복지나 도서관 등등에 있어서 적어도 최소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재정적으로 안정하다는 점을 학생들이나 사회에 대하여 인중, ② 연방정부의 학생 등록금 보조나 용자 프로그램이나 다른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지원 자격을 부여, ③ 학생들의 학교 편입이나 학점교환 용이, ④ 기업들이 입사지원자를 심사하거나 또는 소속 직장인들에 대한 교육비지원 심사시에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평가 등 대학평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여건 개선을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는 평가(긍정적인 답변 62.6%, 부정적인 답변 6%)와 함께 대학경영개선을 통한 대학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학 스스로의 자율적인 발전을 통한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대학들의 자구노력 유도 등 대체적으로 대학전반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대교협 대학평가인정제가 그 동안 우리 대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대학 학사구조개혁 등 제반 교육개혁의 촉진과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교협 대학평가의 평가항목 설정, 절차와 과정 그리고 결과의 활용 등 여러 관점에서 개선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도 사실이다. 대교협의 대학평가에 관련한 일반적인 쟁점들로는 대학평가 주체와 관련한 문제⁷⁾, 평가인정 절차와 방법의 문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의 설정과 관련된 문제, 서열화나 등급화의 필요성 등 평가 결과 발표⁸⁾와 관련된 문제들과 함께 앞으로 평가항목에 있어서 투입 중심보다는 output과 outcome 비중으로 척도와 항목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⁹⁾도 제기되고 있고, 기준 미달 대학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 왔다. 대교협은 대학평가와 관련한 여러 쟁점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대학 평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전문가 그룹에 의한 정책연구와 세미나 개최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 7) 대학평가 주체와 관련한 문제는 대학평가의 주체로서 대학간 자율협의체인 대교협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대학평가 주체와 관련해서는 ① 정부가 주관하는 방안, ② 대학간 자율협의체에서 주관하는 방안, ③ 민간기구가 주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대학평가를 정부가 주관하는 경우 평가업무의 자율성과 대학교육의 자율성의 훼손이라는 보다 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민간기구가 대학 평가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문제, 지속적이고 일관된 평가의 어려움, 평가의 신뢰성 부족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외국의 대학평가제도가 대체로 대학사회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질 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대학사회의 자율화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대학평가와 주체와 관련한 문제는 대교협의 대학평가기구(‘대학평가인정위원회’와 ‘평가지원부’)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대학평가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의 강구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 8) 이는 대학평가결과와 발표형식과 관련된 문제이다. 전 대학을 대상으로 등급화 하는 것은 ‘대학 서열화’라는 또 다른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학생들이나 사회로부터의 보다 많은 평가결과에 대한 요구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교협은 대학평가결과에 대한 발표는 ‘인정여부’와 함께 대학종합평가의 경우에는 영역별 우수대학을, 학문분야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의 4단계로 그리고 각 평가영역에 대한 우수대학을 발표하고 있다.
- 9) 평가항목 등과 관련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점은 크게 1) 질 관리 평가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정량적 평가항목을 축소하고 정성적 평가항목을 확대하는 것, 2) 대학의 평가부담 경감을 위하여 평가항목 수를 축소하는 문제, 3) 과정과 산출에 중점을 둔 평가를 위하여 하드웨어보다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는 문제, 4) 대학별 유형(연구중심, 교육중심 등)에 따른 평가영역 및 항목별 가중치의 차등화 문제 등이다. 대교협에서는 2001년부터 시작되는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의 수행과 관련한 편람개발의 방향을 1) 평가항목을 축소와 질관리 평가 확대, 2)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보다는 교육의 과정과 산출을 강조, 3) 국내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가항목과 기준의 국제적 호환성에 대한 고려, 4)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학의 평가유형과 기준의 다양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른 2주기 종합평가에서의 구체적인 보완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학평가인정제도는 대학 사회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평가 활동으로 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고, 정부로부터 대학의 자율권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는 제도인 만큼 대학평가제도 발전 방향의 모색 또한 대학 사회의 자율적인 질 관리 노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

”

V. 대교협 대학평가인정제 발전 방향

현재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평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대학평가 실시기구와 실시 횟수의 과다, 대학특성 반영 기재 부족, 대학평가 내용의 중복, 대학평가 결과의 처리 및 활용 문제 등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학평가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대학평가전담기구'를 막대한 국고 예산을 투입하여 설립하여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대학평가를 관장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대학평가인정제도는 대학사회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평가 활동으로 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고, 정부로부터 대학의 자율권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는 제도인 만큼 대학평가

제도 발전방향의 모색 또한 대학사회의 자율적인 질 관리 노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

대학평가전담기구를 설립한다하더라도 실제 대학에 대한 평가는 관련 분야의 전문교수들이 담당해야 할 것이므로, 새로운 평가전담기구의 설립은 평가업무를 관리하는 주체를 새로 만들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학평가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대학평가를 관장하려는 시도는 정부가 스스로 그 동안 표방해 오고 있는 대학자율화 정책기조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막대한 국고 예산을 투입하여 새로운 평가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지난 1982년 설립 이래 대학평가제도의 정착에 노력을 해 오고 있는 대학간 협의체인 대교협의 대학평가 기능을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일 뿐 아니라

- ① 대학의 교육여건 보다는 과정과 산출에 중점을 두는 평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졸업생의 진로, 교수업적 등의 실적을 중시
- ② 대학의 특성화 및 차별화를 통한 대학발전을 유도하는 평가체제로 전환하고, 개별대학의 특성화 차별화 전략을 권장하기 위해 i) 기존의 '대학경영 및 재정 평가 영역'에 '경영전략 및 운영'과 '대학의 특성화' 부분을 세부영역으로 보완하였고, ii) '발전전략과 비전'을 새로운 평가영역으로 추가하여 대학 발전전략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였으며,
- ③ 평가항목을 축소하고, 정량적 지표의 일부를 질 관리 평가를 유도하는 정성적 문항으로 전환하는 등의 많은 보완을 하였다.

대학평가인정제도의 제도적 의의와 정부의 대학자율화 정책기조와도 부합되는 정책방향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 대학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으로서 대교협 대학평가인정제도의 발전 방향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평가인정위원회의 기능 강화이다. 이는 대학평가인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대학평가인정위원회'가 대학평가기관간 역할 분담, 평가 시기 및 내용 등의 조정을 통해 대학들의 평가에 대한 행·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대학평가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으로 비정부적인 조직인 대학평가인증협의회 연합체인 CHEA(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를 만들어, 이 기구로 하여금 대학평가기구에 대한 공식적인 자격 부여, 평가인증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분석, 토론, 세미나 등의 활동이나 필요시 대학과 평가기구간에 마찰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대학평가인정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이다. 이는 '대학평가인정위원회'의 설치·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은 현재에도 대교협으로부터 보장 받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이를 보다 강화하여 대교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평가에 대한 공공성,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셋째, 대교협 '평가지원부'를 대교협 내 독립기구인 '대학평가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대교협 '평가지원부'를 대교협 내 독립기구로서 '대학평가지원센터'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평가전문인력 보강 및 예산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평가전문기관화 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대

학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대학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평가에 대한 대학의 부담 경감과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학평가체제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Ⅵ. 맺는 말

각 학문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조직의 특성상,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organized anarchies)(Cohen and March, 1974)로도 표현되는 대학조직은 대학 스스로 내부적인 개혁을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은 조직이다. 고등교육 시장 개방, 대학진학 학생 수의 감소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우리 대학들은 M&A 등 대학구조조정을 통한 대학특성화를 대학발전을 위한 전략 차원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존전략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하는 절박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 대학평가는 '대학자율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대학들의 생존전략이 된 대학특성화 등 '대학개혁을 외부로부터 추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이 2001년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평가에 기초한 경쟁원리의 철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대학평가가 지니는 '대학내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의의를 반영하는 것이다.

새로운 평가전담기구를 설립하겠다는 정책구상은 평가업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를 새로 만들려는 것으로 이는 대학평가제도를 발전시키려는 본질적인 노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구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국고예산을 들여 평가를 관리할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난 82년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대학 평가사업을 주관해 온 대교협

“

지난 82년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대학 평가 사업을 주관해 온
대교협의 대학 평가 기능을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대학 평가 체제의 발전을 위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으로 본다. 이는 그 동안의 대학 평가 사업에 대해
대교협이 축적해 온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며, 대학 평가 업무의 자율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다.

”

의 대학평가 기능을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대학
평가체제의 발전을 위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정
책대안이라고 본다. 이는 그 동안의 대학평가사업
에 대해 대교협이 축적해 온 노하우를 충분히 활
용할 수 있는 방안이며, 대학평가 업무의 자율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다. 그리고 이는 정부가 일관되
게 표방해 온 대학자율화 정책기조와도 부합되는
정책방향이라 할 것이다. 

American College President. New York :
McGraw-Hill.

Judis S. Eaton(2002). “Accreditation and
Quality in the United States : Practice and
Pressures.” Association of Korean
University Presidents(Formerly : KCUE).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발표 자료).

참고문헌

박남기 외(2001).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평
가제도 종합 개선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진위 외(2000). 『대학평가 국제비교 연구』,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Cohen, Michael D., and March, James
G.(1974). *Leadership and Ambiguity : the*

강병운

전남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위스콘신대학 대학원
에서 석사를,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제24회 행정고시를 합격하였고, 교육부 및 청와대 교육문화비
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지원실장 겸 고등교육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